

본회, 중국 양돈협회와 자매결연 체결

—양국 양돈협회간에 상호 우의 증진과 교류 촉진키로



—홍보부—

◀ 한·중 양돈협회 자매결연식(좌로부터 본회 조옥봉 이사, 최상백 부회장, 전동용 회장, 중국양돈협회 구진원 회장, 박영철 부총경리, 왕태건 소장)

본회는 한·중 양국 협회간에 상호 우의 증진과 양돈산업분야의 교류 촉진을 위해 지난 11월 1일 양돈회관 회의실에서 중국양돈협회(회장: 구진원)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다.

이번 양국 양돈협회간의 자매결연체결로 양돈 관련 기술정보 교류 뿐 아니라 국내 양돈산업과 사료, 동물약품등의 양돈관련 산업이 중국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었다.

중국 양돈협회와의 자매결연식에서 본회 전동용 회장은 “본회가 그동안 대만 양돈협회, 미국 아이오와 양돈협회, 캐나다 양돈협회 등과 자매결연을 맺어 민간부분에서 양돈정보 기술교류 등에 힘써 왔으며, 이번에 세계 최대의 돼지사육 국가인 중국 양돈협회와 자매결연을 맺어 양국간 우의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중국 양돈협회의 구진원 회장은 “중국은 역사적으로 돼지고기 소비 중심의 축산국가”라고 밝히고 “중국이 다른 나라 양돈협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것이 처음이며, 양국간에 기술교류 등 폭넓은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구진원 회장은 “양국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한국 양돈산업의 중국에 대한 기술 투자와 관련분야의 상호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중 양돈협회 자매결연식에서는 양측 협회 대표가 서명한 협약서를 교환하고 ▲ 양돈에 관한 경영관리 및 기술의 정보교류 ▲ 양국 양돈협회간에 합작사업추진 ▲ 양국 양돈협회간에 우의의 교환 및 양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반 상호 협조 등의 사항을 협력키로 했다.



◀ 본회
전동용 회장(좌)과
중국양돈협회
구진원 회장이 자매결연
협약서를 교환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날 본회는 중국양돈협회 방문단과 축산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구진원 중국양돈협회장으로 부터 중국양돈현황과 한국 방문소감 등을 들었다.

중국인 대략 1억 5천만명의 농민들이 부업규모로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종돈은 중국 고유의 재래종인 메이산돈과 랜드레이스·요크셔 등 3원 교잡종을 주요 이용한다.

아직 밀사나 다두 사육형태가 아닌 만큼 질병문제가 심각하지 않지만 중앙 부서에서 백신을 무료공급하는 등의 방역을 중시하고 있다.

중국의 양돈산업은 돼지 4억3천만두 정도의 방대한 사육규모이고 1인당 연간 총 육류소비량이 40kg이며, 이중 돼지고기 소비량은 총 육류소비량의 70%인 30kg 정도이다. 중국은 보통 육(肉)이라고 하면 돼지고기를 일컬을 만큼 전통적으로 돼지고기 위주의 소비를 하고 있다.

구회장은 한국 양돈산업계를 둘러본 소감에 대하여 중국과 비교해 돈사시설이 기계화, 현대화되어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고 한국양돈산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거뒀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본회는 한·중 양돈협회간의 자매결연을 위해 중국양돈협회 구진원 회장을 비롯 중국 농업부 수약감찰소 박영철 부총리, 중국 농업부 수약감찰소 북경연구소 왕태건 소장을 지난 10월 28일 초청하여 11월 4일까지 국내 양돈업계 시찰과 지역 양돈인과의 간담회, 동물약품 관계자들과의 감담회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중국 방문단이 시찰한 장소는 본회 제1종돈능력검정소, 제일제당 육가공공장, 농림부, 한국 미생물연구소, 축협중앙회, 수의과학연구소, 가축위생시험소, 구일축산 등이다.